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 12호 【무제 제 25886호】 주제 107 (2018)년 1월 12일 (금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국가과학원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 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국가과학원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박태성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최동명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조용원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현지에서 국가과학원 원장 장철동지, 국가과학원 당위원회 위원장



김운기동지가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동행한 일군들과 함께 국가과학원에 정중히 모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에 삼가 인사를 드리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우리르시면서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은 과학자들 한사람한사람을 품들어 키워 당의 두리에 성벽처럼 세워주신 과학자들의 자애로운 스승이시며 아버지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국가과학원의 과학자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찾는것으로부터 하루사업을 시작하고 어렵고 힘든 과학연구과제를 받아안았을 때에나 훌륭한 과학기술성공을 이룩하였을 때에도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을 뵈오며 마음속진정을 더놓고있다고 하는데 수령님과 장군님을 언제나 정신적 기둥으로 모시고 살며 투쟁하는 과학자들의 충정심이 대단히 높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새로 개건한 국가과학원

혁명사적관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귀중한 사적자료들과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보시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직접적인 발기에 의하여 1952년 12월에 창립된 국가과학원은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의 손길아래 자랑스러운 발전행로를 걸어올수 있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국가과학원은 지난 기간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든든히 세우고 과학연구활동을 힘있게 벌려 혁명과 건설의 매 시기마다 제기되는 과학기술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자립적민족경제를 든든히 쌓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치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위력을 강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고 하시였다.

현대과학기술발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주요과학부문을 높은 단계로 올려세울수 있는 과학기술적토대를 마련하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다고 하시면서 국가과학원의

강화발전과 그 길에서 이룩된 모든

성과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훌륭히 개건한 혁명사적관을 통한 사상교양사업을 짜고들어 모든 과학자들이 과학에는 국경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과학의 리전, 과학으로 복무해야 할 귀중한 사회주의 조국이 있으며 과학을 해도 오직 조선로동당의 붉은 기발아래서만 하겠다는 억척의 신념을 간직하게 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높은 과학연구성과로 길이 빛내여가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과학전시관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과학전시관을 새로 잘 꾸리였으며 수많은 과학연구성과자료들과 전시품들을 전시해놓았는데 우리의 과학자들의 두뇌에서 나온 창조물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이곳은 자력자강의 보물고, 국가과학원은 자력자강의 고창집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조건

에서도 우리의 과학자들은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정말 큰 일을 하고있다고 치하하시면서 온 나라 전체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자신의 뜨거운 인사를 보내시였으며 국가과학원에 특별상금을 배려해주시는 대해같은 은덕을 베풀어주시였다.

현지지도의 길에서 해당 단위의 일군들로부터 국가과학원 과학자들의 현실적인 노력에 의하여 기적같은 성과들을 이룩할수 있었다는 보고를 받을 때마다 커다란 기쁨을 느꼈다고 하시면서 미더운 과학자대군이 조선로동당의 정책을 열렬히 지지하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고있기에 우리 당이 강한 것이라고 확신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조선혁명이 모진 시련과 난관을 파감히 박차고 승승장구하고 있으며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가 비상히 강화될수 있는 비결의 하나가 바로 과학기술에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 사회주의의 운명을 걸고 과학기술 발전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온데

있다고 하시면서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가 있고 우리가 육성한 든든한 과학기술력량과 그들의 명석한 두뇌가 있기에 적들이 10년, 100년을 제재한다고 하여도 뚫지 못할 난관이 없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돌파구를 열어 제끼며 당중앙위원회 제 7기 제 2차 전원회의가 제시한 혁명적 대응전략의 요구대로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개선 향상시키기 위한

지름길은 과학기술을 앞세우는데 있다고 강조하시였다.

과학연구사업이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을 충분히 발휘하는데 이바지하도록 하자면 과학연구사업에서 종자를 바로 잡고 역량을 집중하여 훌륭한 과학연구성과를 이룩하며 그것을 현실에 제때에 도입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우리가 건설하는 사회주의강국은 세계선진수준의 과학기술에 의하여 추동되고 담보되는 지식경제강국이라고 하시면서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기풍이 온 사회에 차넘치게 하여 누구나 과학기술의 주인, 과학기술발전의 담당자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과학기술인재들과의 사업에 큰 힘을 쏟으며 그들을 존중해주고 연구사업과 생활에서 불편한 점이 없도록 절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는것과 함께 과학연구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속 늘려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국가과학원과 위성과학자주택지를 더 잘 꾸리는데서 나서는 대책적 문제들도 의논해주시였다.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국가과학원을 현지지도하시였다



1 번 에 서 계 속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국가과학원의 일군들과 과학자들은  
과학전선들 사회주의수호의 전초선  
으로 믿어준 당의 의도를 항상

명심하고 높은 리상과 꿈을 안고  
노부신 과학연구성과로 부강조국건  
설에 적극 이바지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과학자들은 자기들의 일터에 찾아  
오시여 주제과학이 나아갈 앞길을  
확실히 밝혀주시고 한량없는 사랑과  
믿음을 안겨 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할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진행하신 국가과학원에 대한 현지  
지도는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사회

최후승리를 앞당겨 오려는 조선  
로동당의 확고한 결심과 의지를  
온 세상에 다시금 파시한 불멸의  
로정으로 조국청사에 길이 아로  
새겨질것이다.

본사정치보도반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를 여러 나라에서 불레전에 게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역사적인 신년사의 진문을 기념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가 2일 불레전에 게재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역사적인 신년사의 상세한 요지를  
3일 아르헨티나공산당 인터넷국제  
문예블레판 《데 포다스 바르에스》가  
게재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신년사의 전문을 주례사상연구 베네  
수엘라진국협회가 2일 불레판에  
게재하였다.

본사기자

## 김정은동지는 희세의 정치원로이시다 여러 나라 인사들 격찬

위대한 명진로선과 과학중시사상  
으로 최강의 국가방위력을 마련하  
시고 부강조국건설의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특출한 명도신력은 세  
인의 찬탄과 존경을 자아내고있다.

여러 나라 인사들은 축전과  
속 하편 지 등에서 경 애 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위인상을 격찬  
하면서 희세의 천출위인을 높이  
모시어 조선은 불멸의 사회주의강국  
으로 더욱 빛나게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네팔공산당(맑스-레닌주의) 중앙  
위원회 총서기는 다음과 같이 지적  
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비범한 사상리  
론활동과 정력적인 명도로 주체의  
사회주의와 강력한 국방력을 건설  
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현명  
하게 이끌고계신다.

그이의 명도민에 조선은 국가력무  
력완성의 역사적대업, 로체프강국위  
업을 빛나게 실현하였다.

오늘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굳게  
봉헌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그 어떤

장지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세계적인  
핵강국, 군사강국의 위용편치며 주체  
의 한걸음 역세에 나아가고있다.

에스바나인민공산당 중앙위원회  
국제비서는 김정은동지이사야말로  
미제의 끈질긴 침략과 위협, 제세력  
동축에서 조선을 불멸의 군사강국으  
로 일떠세우신 희세의 군사가이시며  
정치원로이시다. 그이의 정치적결단  
성과 명도통보는 복잡다단한 국제정  
치정세속에서 더욱 뚜렷이 증명되었  
으며 진보적인류는 이를 높이 칭송  
하고있다고 격찬하였다.

에리트레아사회주의자당 부위원장  
은 이렇게 강조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난해 제국주  
의에 의하여 조성된 온갖 도전과  
난관을 극복하고 조선민족의 념원이  
반영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시  
였다.

그이의 명도민에 조선인민이 민족  
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할수  
있는 강력한 핵억제력을 가지게  
된것은 찬란한 미래를 활하여 당당  
하게 전진할수 있는 튼튼한 담보로  
된다.

베히프조선전선협회 위원장은 다  
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정은동지의 명도민에 조선인민  
은 수호관심과 대륙간단도메트  
시협박사에서의 대성공을 통하여  
국가력무력완성의 역사적위업을  
빛나게 완수하였다.

이 력사적인 사면은 제국주의자들  
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으며 진보  
적인민들에게는 승리의 신심을 안겨  
주었다.

조선인민은 앞으로 김정은동지의  
명도따라 온갖 원수들과의 치열한 대  
결전에서 언제나 승리만을 이룩할것  
이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은  
강철의 명장을 혁명의 전투에 높이  
모시어 조선인민은 강국의 존엄을  
높이 떨치며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고있다고 하면서  
김정은동지의 명도는 조선인민과  
세계혁명적인민들이 세계자주화위업  
을 실현하고 평화를 굳건히 수호해  
나가도록 하는 강위력한 추동력으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불굴의 신념으로 삶을 빛내인 견결한 혁명가

우리 혁명의 첫 세대들의 진열에  
는 혁명가는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자  
기의 신념과 지조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를 실천적모범으로 보여주시  
는 불굴의 혁명투사 김형권동지의  
승고한 모습도 빛나고있다.

위대한 명도자 김형권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코시하시였다.

《김형권동지는 일찌기 위대한  
수령님을 단결의 중심으로  
민족의 래양으로 높이 우러랜  
모시고 수령님께 충성다한  
견결한 공산주의자였습니다. 김  
형권동지는 수령님께서 제시  
하신 주체적인 무장투쟁로선과  
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 국내에  
파견되어 활동한 조선혁명군 무  
장소조의 책임자였습니다.》

김형권동지께서는 우리 혁명의 개척  
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무오신  
백선정년동맹 사업도 정력적으로  
진행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무장  
투쟁로선을 받들고 조선혁명군에  
입대하신 그이께서는 무장소조를  
이끄시고 국내에서 진술하시여 광범  
한 대중들속에서 정치활동을 힘있게  
벌리시였다.

지금도 귀를 기울이면 금시 불려  
울것만 같은 파발씨의 총소리!

김형권동지께서는 악질군사부장  
《오백씨》놈의 가슴속에 복수의 용관  
을 안기시고 주체소악에 모여신 군  
중들앞에서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고  
있었던 나라를 찾기 위하여 모두가  
손에 무장을 들고 싸워야 한다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김형권동지의 그날의 언설은 국내  
인민들을 반일투쟁으로 불어일으키  
는데서 커다란 고무적힘으로 되었고  
며 오늘날도 그의 불굴의 혁명정신  
을 말하여주는 역사의 메아리로 높이  
울리고있다.

데탕무쌍한 군사활동과 정치사업  
으로 국내인민들을 반일투쟁으로 작  
극 불어일으키시던 김형권동지께서  
는 변절자의 밀고로 그만 일제경찰  
놈들에게 체포되시였다.

김형권동지의 굳센 신념과 의지를  
위아버리고 능력이 약한 고문을 볼  
아데였으나 그이께서는 능력이 우  
미를 죽일수는 있다. 그러나 밝아오  
는 태양의 빛은 그 어떤 힘으로도 막  
지 못할것이다. 이제 그 빛은 열었던  
조국땅을 녹이고 단풍을 소생시킬것  
이다. 그날은 꼭 오고야만한다고 하시  
며 조선독립만세를 소리높이 외치시  
였다.

김형권동지의 이 궤명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불굴이 열렬하고  
리없이 깨끗한 충실성과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의 분출이었다.

어떤 정황속에서도 투쟁을 한순간  
도 멈추지 않으신 김형권동지께서는  
세판정에서도 일제의 피행을 고발하  
시며 동지들과 함께 《혁명가》를 높이  
부르시였다.

배앗긴 제 나라를 찾기 위하여 싸  
운것이 어찌 죄로 될수 있는가고 늘  
불을 준열히 규탄하시며 세판정을 오  
리려 일제의 피행을 폭로하는 집판  
장으로 만드신 김형권동지.

악독한 일제교형리들은 나중에는  
그이께 못이 솟은 널판자우를 맨탈  
로 걸을것을 강요하였다.

그이께서는 피하거나 주저하지  
않으시고 못이 솟은 널판자우를 못  
이 걸으시며 조선혁명만세를 소리  
높이 부르시였다.

원수들은 불굴의 혁명가의  
굳센 의지와 엄연한 기상에 진통하  
였다.

참으로 김형권동지는 백범불굴의  
혁명정신과 강한 의지를 지니신  
혁명투사이시였다.

김형권동지께서 감감한 특감방송  
에 감하여 손과 발마저 쇠꼬챙이에  
이운 절해고도에서도 끝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으신수 있은것은 위대한  
수령님을 명도의 중심, 민족의 태양  
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사랑하는  
조국을 되찾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  
에 한분바치는것을 크나큰 영광으  
로, 더없는 행복으로 간주하시였기  
때문이다.

옥중투쟁을 힘차게 벌리시던 어느  
날 그이께서는 한장의 《동아일보》를  
받아보시였다. 거기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명도하시던 조선인민혁  
명군의 노부신 활동에 대한 기사가  
실리였었다.

그이께서는 크나큰 감격과 흥분에  
휩싸여 상치의 아름까지 일으킨듯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복돋아놀을  
오래도록 바라보시였다.

김형권동지께서는 이날 배두쌍야  
를 주름잡으시며 강도 일제를 때려  
부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단 한번만  
이라도 다시 뵈고싶은 간절한 그리  
움으로 가슴 불태우시며 우리 나라  
의 해방이 멀지 않았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삼촌  
은 눈을 감는 마지막순간에야 수  
감자들에게 숨기고있던 이야기를  
하였다.

《김형권은 내 조카이다. 그는 지  
구 만주에서 큰 혁명부대를 이끌  
고 댕놈들을 죽치고있다. 그 부대  
가 국내에 쳐들어올 날은 멀지 않  
다.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무장  
으로 싸우라. 무장을 들고 싸워야  
댕놈들을 쫓아내고 나라를 해방할  
수 있다!》

나는 혁명삼촌을 생각할 때마다  
카를로인의결정을 관철하는 길에서  
청춘을 서슴없이 내던진 수많은  
전우들을 눈앞에 그려보곤 한  
다.》 라고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그처럼 조국과 인민을 사랑하고  
위대한 수령님을 열렬히 흠모하신  
불굴의 혁명투사 김형권동지께서  
는 장기간의 옥중생활과 원수들의 악  
착한 고문으로 조국해방의 날을 보지  
못하시고 주체25(1936)년 1월  
12일 옥중에서 생을 마치시였다.

정명 김형권동지의 생애는 혁명승  
리에 대한 절대불변의 신념으로  
빛나는 고결한 한생이었으며 썩이면  
썩일지언정 굽히지 않는 백범불굴의  
혁명정신의 고귀한 모범이었다.

몇 해전 마두산혁명전적지 불  
꽃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혁명  
은 곧 신념이며 신념을 버리면 혁명  
을 할수 없다고, 혁명적신념을 굳건  
히 간직할 사람만이 혁명의 길을 끝  
까지 걸어갈수 있으며 조국과 인민앞  
에 땀땀을 흘리고 말씀하시였다.

혁명은 곧 신념이다.

눈속에 묻히어도 푸른빛을 잃지  
않는 소나무처럼, 부식저 가루되어도  
원기를 잃지 않는 벼옥처럼, 열매만  
붙어 따도 문음을 잃지 않는 참치  
렁 혁명가는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  
지 않아야 한다.

불굴의 혁명신념으로 수놓아진  
김형권동지의 고결한 생애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따라 혁명의 최후승리  
를 이룩해나가는 우리 인민의 영웅적  
투쟁과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

오 영 심

#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반드시 점령할 열의안고 농사차비전투에 펼쳐나섰다

## 과학적인 작전으로 열어나가는 다수확의 돌파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모든 일꾼들은 사무실에만 앉아서서 말고 밭에서 나가 앞장서서 자기 부문, 자기 단위를 이끌어가는 기관차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뜻깊은 올해의 알곡생산목표를 반드시 점령할 열의로 중산군 일꾼들이 무굴부굴 꿰고있다. 새해농사차비전투에 펼쳐나선 일꾼들과 농장원들의 기세가 이만저만 아니다. 어디서나 혁신성과가 활짝 피어났다. 구식전 전통에도 예년에 열이 많은 것들이 쌓이고있다. 모순과 장애를 없애고 생산에서의 실적 또한 눈에 띄게 올랐고있다.

하지만 구식전 전통을 고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알곡생산의 돌파구를 앞장에서 열어나가는 군일꾼들의 과학적인 작전과 혁신적인 실천이다.

이렇게 되어 혁명적 개성을 더한 것들이 있다. 그것은 알곡생산의 돌파구를 앞장에서 열어나가는 군일꾼들의 과학적인 작전과 혁신적인 실천이다.

이렇게 되어 혁명적 개성을 더한 것들이 있다. 그것은 알곡생산의 돌파구를 앞장에서 열어나가는 군일꾼들의 과학적인 작전과 혁신적인 실천이다.

### 중산군 일꾼들의 사업에서

배출수 있었다. 더우기 이 사업은 지난해 가을과 겨울철에 막에서 즉각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을 철저히 극복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였다.

정확 1.0여km나 되는 불꽃들을 모두 정리하자고보니 지역별이 간단치 않았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머리를 긁적거렸다. 머리가 긴장된만큼 일부 구간들이 정리하지는 의전들도 제기되었다.

하지만 군일꾼들의 열의가 어떻게 되어 혁명적 개성을 더한 것들이 있다. 그것은 알곡생산의 돌파구를 앞장에서 열어나가는 군일꾼들의 과학적인 작전과 혁신적인 실천이다.

이렇게 되어 혁명적 개성을 더한 것들이 있다. 그것은 알곡생산의 돌파구를 앞장에서 열어나가는 군일꾼들의 과학적인 작전과 혁신적인 실천이다.

### 유기광물질 복합비료 생산을 중시한 까닭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유기광물질 복합비료를 적게 치고도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습니다.》**

금야군 청동협동농장의 새해농사차비에서 유기광물질 복합비료를 생산하는 열의가 뜨겁다. 새해농사차비에서 유기광물질 복합비료를 생산하는 열의가 뜨겁다. 새해농사차비에서 유기광물질 복합비료를 생산하는 열의가 뜨겁다.

### 금야군 청동협동농장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유기광물질 복합비료를 적게 치고도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습니다.》**

금야군 청동협동농장의 새해농사차비에서 유기광물질 복합비료를 생산하는 열의가 뜨겁다. 새해농사차비에서 유기광물질 복합비료를 생산하는 열의가 뜨겁다. 새해농사차비에서 유기광물질 복합비료를 생산하는 열의가 뜨겁다.

## 왜 물길가시기를 앞세웠는가

중산군 양서농장에서

왜 물길가시기를 앞세웠는가. 이는 과학적인 논농업을 진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물길가시기를 앞세운 이유는 토양을 개선하고 농작물의 수확량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물길가시기를 앞세우면 토양의 수분과 영양분이 풍부해져 농작물의 생육이 촉진된다. 이는 곧 농작물의 수확량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 저름을 많이 내어 땅을 절군다

수안군 수덕협동농장에서

저름을 많이 내어 땅을 절군다. 이는 토양의 비옥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 저름을 많이 내면 토양의 영양분이 풍부해져 농작물의 수확량이 증가한다. 이는 곧 농작물의 생산량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 정보당 거름 30t을 벌 목표밀에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에서

정보당 거름 30t을 벌 목표밀에. 이는 과학적인 농사방법을 통해 목표 생산량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였다.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은 정보당 거름 30t을 벌 목표밀에 도달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는 곧 농작물의 수확량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질 좋은 식료품을 많이 생산하고있다. -송도원종합식료품공장에서-

## 각지 청년들 농사차비에

각지 청년들 농사차비에. 이는 농사차비전투에 앞장서는 청년들의 열의와 헌신을 보여주는 사진이다. 이들은 농사차비전투에 앞장서서 농작물의 수확량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활해남도인민보안국에서

활해남도인민보안국에서. 이는 인민보안국의 구성원들이 농사차비전투에 앞장서는 모습이다. 그들은 농사차비전투에 앞장서서 농작물의 수확량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에 인민생활상에서

농업전선을 힘있게 지어

일정계획을 이김 없이

### (3) 우리는 당세포결정을 채택했다

김준길

역세게 추겨는 손과 손들  
얼마로 졌는 마음들  
신년사의 파열을 기어이 관철할것을  
우리는 2018년의 첫 당세포결정  
으로  
연속해 채택하였다

제더미를 세치고 권리마시대를  
열어놓을  
강선의 르동계급 그 정신으로

세포당원들이 손을 들었다  
성스러운 당기앞에서  
입당선서를 하던 그때처럼  
한지도 드림없을 결사의 명약  
으로  
당원중들은 심정들은 높였다

돌격로의 앞장에서  
목숨도 내대야 할 그런 시죽연  
심정도 바실출 이는 불사신들  
우리는 조선로동당원들

총권군의 전투에 서신  
우리 원수님  
두어찌에 걸리지신 무겨울 그  
김을  
우리가 덤어드리고있어  
강행군길에 맞고맞으시는 그  
눈비를  
당원, 우리가 다 해치고있어

불이 되고 기말이 되어  
돌파구를 열어가신 그 자욱마다  
무수히 솟을 시대의 기념비들  
이 땅에 차남칠 인민의 웃음소리  
남로 쫓아지는 조국의 모습이  
말해주시라  
우리가 당결정을 어떻게 관철했는  
가들

세포의 로당원도  
신입당원처럼  
심장에 불라는 하나의 생각  
당원, 우리의 모습에서  
불꽃의 전위투사를 보게 하리라

새해의 전군길에  
수십만 당세포가 채택한 첫 당결정  
수백만 당원들의 심장에 띄우  
치며  
만리마의 역설 나래가 되리라  
당중앙집사총위의 성세로 치우  
리라

조국이 가장 어렵고 힘겨울 때  
당세포결정을 목적으로 지어낸  
막원의 일명 당원들 그 자욱마다

이해의 자랑찬 평마루에 올라선  
그날  
세포당원들은 맺었어  
이 당결정을 다시 펼치리라  
그리고 공지높이 쓰리라  
오직 한이다 《집행하였음!》

### (4) 청춘, 우리가 떨치자!

방명희

작열하는 피들이 안았는가  
얼결은 불린다  
무한한 끝은 힘어 뻗는다  
확-확 내뿜는 청춘의 그 열기로  
짓궂음부터 기세차구나  
오, 청춘들의 새해전군길은

우린 다 들끓는 친구들에서 통성  
하게 되리  
신문의 어느 칼럼에선가  
위훈받은 우리의 모습  
은 나라가 보게 되리

총구나  
푸른 세포 편치었고  
은 기개가 들끓어 《청춘총가》  
부르며  
삼지연과 단련, 원산강마지구...  
새해의 전열들로 떠나는 청춘의  
대오

그렇다!  
저 하늘의 별보다  
더 많은 위훈의 별무리들  
이 땅에 세기고있을  
아침도 만만한 이 나라 청춘  
포부도 높아라

위대한 장군님께서 강제정신을  
강조해주신 20대를 맞으며 가장  
당대에서는 강개시에 체육관을 훌륭  
히 일떠세웠다. 장자강기승의 풍  
지휘하러 물고기 들어있는 체육관  
은 자강도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체육강국, 문명국건설  
구상을 높이 받들고 일떠세운 자  
력자강의 창조품이다.

그렇다!  
저 하늘의 별보다  
더 많은 위훈의 별무리들  
이 땅에 세기고있을  
아침도 만만한 이 나라 청춘  
포부도 높아라

체육관에는 실내축구를 할수  
있는 경기장과 선수들 감독들  
기실, 심판원들, 한층같이 달린  
목욕실, 생활용품대며 등이 갖  
추여져있다.

### 체육관이 훌륭히 일떠세웠다

자강도에서

북방의 한교냈는 평을 넘고있  
은 한해에도 몇차례씩  
자강도를 찾아주시 위대한  
장군님께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진히 집단체조를 보아주시 뜻  
은 장수인 강제정기강을 현대적  
으로 잘 꾸리며 경기장과 어울리  
게 그 열에 체육관을 새로 건설  
할때 대한 가르침을 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은 교장인  
자강도의 인민들이 더욱 문명  
생활을 향유하도록 하시며 언제  
나 마음쓰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체육관을 최강의  
수준에서 건설할수 있게 가장 사랑  
어린 조치를 다 취해주시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체육관을 빠른 시  
일안에 일떠세울 대담한 목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조직  
정치사업을 짜고쳤다.

도시에서는 내일성이 있는 일꾼  
들로 강력한 건설자취부를 조직  
하되 건설비와 수당, 자재보장  
사업을 적극 떠맡고 건설을 빠  
른 시일안에 집적으로 다그쳐 끝  
낼수 있는 담보를 마련하였다.  
체육관건설에 펼쳐나선 일꾼  
들과 건설자들은 고난의 행군시  
기 위대한 장군님의 명도따라  
막원의 행군길을 앞장에서 열어  
내던 강제정신의 창조자출발  
체육관을 훌륭히 일떠세우기  
위해 공적들을 힘있게 벌려왔다.  
건설지휘부의 일꾼들은 전투

원정들 나가 대군의 정신력을  
폭발시키는 정치사업을 힘입  
으로 돌이켜서 로력과 기계수  
단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자  
재보장을 앞세웠다.

공사에 참가한 건설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강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대적 체육  
강국건설구상을 현실로 꽃피우  
는 높은 열의를 안고 1만 5천㎡  
의 기초공사를 와타단 써체끼고  
날과 밤이 따로 없는 긴장한 건  
투를 벌려 습식공사에서 매일  
높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들은 건  
공에서 선 하루주조, 후 상부  
조건현실들을 엄격히 준수하여  
실현된, 밀착권을 힘있게 벌려 공  
사속도를 무난히 높여나갔다.



자강도에서 건설된 일꾼들  
과 건설자들은 기쁘고 대담한  
공업을 받아들여 무대출발지와  
관람석축조작업을 빠른 기일안에  
끝내고 트라스들을 성과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공사를 다그쳐 끝  
낼수 있는 놀라운 성과를 얻어냈다.  
비판적으로 미장을 비롯한 습  
식공사, 무제생산을 위한 경쟁  
과 따라나선기, 파타베우기운  
중, 정형화한운동이 활발히 벌  
어저 전투장의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었다. 특히 9대대, 8대  
대, 4대대의 전투원들은 매일  
자기들만의 맡겨진 습식공사과  
제를 넘쳐 수행하였다.

### 재일조선학생소년예술단을 위한 연회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학생소년들의  
주제 107(2018)년 설맞이공연에  
참가한 재일조선학생소년예술단  
을 위하여 마련해주신 연회 11일  
인민문화관에서 있었다.

그는 조국방문의 나날 예술단원  
들이 인민사랑, 후대사랑의 새 력사  
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친솔하신상과 조국의 비찬 현실을 목  
격하시어 무궁무진한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천만년미래를 굳게  
확신해 하며 연회를 열었다.

###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몽골대통령에게 신임장 봉정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8일 몽골대통령에게 신임장을 봉  
정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사회주의강국  
건설을 전수하시신 그 바르신 속  
에서도 제일조선학생소년예술단  
성원들에게 뜨거운 응원을 들려주  
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 영원한 전우, 한시술

한시의 불꽃은  
은 우주가 빛나는  
답이었다.

영원한 전우, 한시술  
함참시 사포구역 사포 1동에 사는 한 영예군인의 생활에서



